

사설

새 비구니회장 스님에 거는 기대

한국불교 출가 대중의 절반을 이루는 비구니 승단의 위상은 세계 불교 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다. 불교를 신봉하는 50여개 나라 중에서 독자적인 비구니 승단을 운영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포교나 문화, 복지 분야에서 비구니 승단의 역할은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온유함이 요구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구 250계에 비해 현격히 많은 비구니 348계가 상징하는 엄격한 계행은, 형식적 불평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회의 엄정한 도덕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따라서 비구니 승단의 위상은 승가 전체의 위상을 위해서도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명성 스님의 개인적 정체성은 한국 최고의 비구니 교육 기관인 운문승가

대학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평생을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을 키우는 데 바친 것이다. 바로 이점이 명성 스님에 대한 기대의 근거다. 이미 조직 구성원의 신망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명성 스님은 이미 8년 간 비구니회 부회장 소임을 맡은 바 있다. 한국 최대의 비구니 조직을 이끌 경험도 충분하다. 특히 비구니회는 올 8월 비구니회관을 준공하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런 의욕적 성장에 걸맞은 질적 성숙과 조직력 강화가 최대의 과제라 떠오른 상태다. 어떤 때보다 회장의 역할이 막중한 때인 것이다. 비구니회의 발전은 한국불교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다. 명성 스님의 학덕과 신망에 거는 기대가 큰 이유도 거기에 있다.

천년고찰을 파는 이유

도심포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래서 도심포교당들이 곳곳에 생기고 여러 약속건 속에서도 보다 효율적인 포교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에 열정을 쏟고 있다.

정도도 설명하고 있다. 조계종과 태고종의 분규 사찰은 대부분 소유권자와 점유권자의 권리를 나누어 갖는 형태를 유지 하는데 안정사의 경우 종단적 합의가 없이 천 년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물론 더 큰 문제는 신라 시대에 창건된 것으로 전해지는 천년 고찰이 매각되어 그 터에 아파트가 지어져져 되는 나라는 현실적 장애가 된다 하더라도, 유서 깊은 사찰을 보다 훌륭하게 보존하여 도심 포교의 도량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불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심에 사찰을 하나라도 더 설립해야 할 시기에 천년 고찰을 매각한다면 그 이유는 '포교의 사명'보다 더 커야 한다는 점을 숙고하길 바란다.

최근 조계종과 태고종 간의 분규사찰인 서울 시내 소재 안정사(다른 이름은 청련사)가 대웅전을 포함한 전체 부지 3천 5백 여 평을 주택개발 업체에 매각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이 성사되면 양 종단은 서울 인근에 상당한 규모의 땅을 매입해 사찰을 설립 하는 등 '대토' 작업을 할 계획이라는 소식이다.

태고종은 "총무원이 전혀 몰랐던 일"이라며 주지 스님에 대한 징계와 계약 추진 무효화를 주장하는 등 종단적 대책을 세우고 있다. 조계종은 종단 목적 사업을 위한 선택이었다는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대불련, 거리 나았을 위기

사무실임대료 5개월분 지불못해

대학생포교의 전진기지인 한국 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가 사무실 임대료를 5개월간 내지 못해 거리에 나았을 위기에 처했다.

조계종 총무원 내 종회건물에 위치해 있던 대불련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신축을 위해 지난 3월 임대 사무실을 얻어 나가면서부터 비롯됐다. 사무실을 종료 3개월 전까지 임대료를 내지 않자 대불련은 교육원측으로부터 보증금 2천만원과 포교원으로부터 임대료(매월 120만원)를 받기로 협

약했다. 이에 따라 교육원과 포교원은 대불련 측에 해당 금액을 입금했으나, 포교원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료에 관해 서로 이견을 보임에 따라 사무실 임대료가 5개월이나 미납된 상황에 놓인 것이다. 포교원 박용규 신도과장은 "약속한 임대료 상당의 금액 일천만원을 일시불로 입금한 상태"라며 "포교원은 원칙대로 모두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대불련 한승희 수석지도위원은 "포교원에서

조계종 통합신도회 출범 목전에

'전국신도회'로 개칭안 중회상정키로

조계종의 양대 신도 단체인 중앙신도회와 전국신도회의 통합 출범이 가시권 안에 들어왔다. 조계종은 10월 24일 열린 총무원회에서 종헌에 나와 있는 '중앙신도회'란 명칭을 '전국신도회'로 개칭하는 안을 11월 정기 중앙종회(1-15일)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신도회 36-39조제4절 중앙신

도회에 명시된 '중앙신도회'란 명칭도 '전국신도회'로 일괄 개칭키로 했다. 통합 신도회의 명칭을 '전국신도회'로 한다는 문제는 지난 3월 양 단체가 합의한 사항으로, 상징적인 성격을 띤 명칭 개칭안이 종회를 통과하면 앞으로의 통합 일정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미 리서치기관 조사

미국의 전문 리서치기관인 조그비 인터내셔널과 로체스터 대학이 10월 17일 발표한 국제 종교여론조사에 따르면, 한국 불교신자들은 종교생활

에 비해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찰이나 포교당 등 종교기관 참배예배 횟수를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62%가 한달에 한번 이하로 찾는다고 답해 종교생활에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질

한국불자들 종교생활에 소극적

사찰참배 월1회 이하 62%나

보다 경제적 안정과 능력개발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인생의 최대가치로 종교생활을 뽑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의 불교신자들은 또 정기적인 종교활동에도 타 종교인

문에 한국 기독교신자는 89%가 일주일에 한번 이상 종교기관을 찾았다고 답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 무슬림의 84%, 미국 가톨릭교도의 72%도 일주일에 한번 이상 찾았다고 응답했다. 김은경 기자

조계종 내년예산안 내달 중회상정

일반 162억·특별회계 211억원

조계종이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조계종이 10월 23일 밝힌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162억2천1백만원, 특별회계는 211억5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590만원(0.04%) 늘어났으나 특별회계는 24억8천만원이 줄었다. 이 예산안은 11월 1일부터 열리는 조계종 정기중앙종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상황과 사찰 재정 수입을 감안하고 분담금보다는 자체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의 특징은 일반회계의 경우 중앙·특별·지역·관람료 분담금을 모두 동결하고 특별회계전출금을 대폭 삭감해 이를 사업비와 보조금으로 전환시켰다는 점이다. 특별회계 전출금은 올해 26억3천만에서 내년도 12억7백만원으로 54.2%가 삭감된 대신 중앙박물관 운영에 따른 8-10억여원의 인상을요인을 보조금과 사업비에 포함시켰다. 한명우 기자



불교포교 활성화...대원상 제정

대한불교진흥원, 11월15일까지 접수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문각)이 설립자인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한국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를 위해 대원상을 제정했다. 대한불교진흥원은 10월 21일 "불교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불자와 단체를 선정, 대원상을 시상하겠다"고 밝혔다. 대원상은 불교포교에 기여한 개인(1천만원)과 단체(1천5백만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수상기준은 개인의 경우, 불교포교 활동경력 10년 이상이며, 단체는 활동회원 30명 이상으로, 설립 5년 이상인 곳이다. 추천접수 기간은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추천서 양식은 진흥원 인터넷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다운받으면 된다. 시상식은 12월 17일 오후 2시 다보빌딩 3층 대법당에서 열린다. 문의:02)719-1855 한편 동국제강 창업주였던 대원 장경호 거사는 1975년 불교대중화를 서원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인 31억6천만원을 털어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을 설립했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단 의례의식 통일

신도용법요집 내년출간

조계종 <신도용법요집> 편찬위원회(위원장 도영 포교원장)가 10월 22일 발표했다. 조계종 포교원 포교연구실과 조계종 출판사, 조계사, 도선사, 봉은사가 공동 참여하는 편찬위는 올해 안에 <천도재용의식집>을, 내년에는 <신도용법요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포교원은 "사찰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단 의례의식의 통합은 곧 조계종 신도로서의 정체성 확립과도 연결된다"고 밝혔다. 권형진 기자

聲 明 書

歸依三寶하고삼가江湖에 有緣佛子 제현께 한 말씀을 올리오니 下覽(하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宗은 五十年前 장종 당시에 제정된 宗憲 및 宗法이 시대적 조류와 그 시행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1997년 12월 20일에 중앙종회에서 宗正殿下의 임석하에서 만장일치로 개정하여 종래의 宗正中心에서 院長中心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이 새로 개정된 宗憲을 공포하고 시행하여 오던 중 2년이 넘는 1999년 9~10월경에 종정에하께서 문제를 제기하여 종전의 종헌으로 환원할 것을 주장하고 司法當局에 제소하는 사태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1종단 2체제의 형태로 서울과 부산에 두 사무소가 양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2년 3월 3일에 이르러서 종정에 하께서 그 모순점을 깨닫고 양측의 통합을 결정하여 이를 시행토록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그후로 통합을 위한 사무적 절차를 이행코자 양측의 실행위원까지 2002년 12월 26일에 위촉하였던바 갑자기 종정에하께서 병환이 침중하여 그 결실을 보지 못한채 入寂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7개월 동안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되어 오느니 그 다툼의 내용에 있어서는 종정에 하께서 이미 생전에 통합의 단안을 결정하셨을뿐만 아니라 事理로서도 그 원인이 소멸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말미암아 지난 9월에 개정된(복원) 종헌에 의하여 제 11대 종정을 추대하고 그 취임을 마쳤기에 이를 널리 알리는 바입니다. 이로써 故 法弘 宗正 예하의 유지를 받들고 그의 업적을 계승하여 우리나라 佛敎界의 獨步의인 元曉佛敎의 正脈(정맥)을 이어갈 것입니다. 돌이켜보건대 그동안 일연의 사태는 너무 小我의인 허물을 自初한듯 하옵기 揚於家醜(양어가추)의 부끄러움이 있음을 무릅쓰고 그 전말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바이오니 강호에 유연불자제현께서는 넓은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더욱 편달의 채찍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7년 10월 일

대한불교원효종 제11대 종정추대위원회 대표 총무원장 승 무 진 합장

公 告

本宗에서는 지난 봄에 入寂하신 第十代 宗正 李法弘 大宗師의 後任 第十一代 宗正으로 本宗의 前 中央宗會議長 慧峰堂 尙泳(本名 金尙祚) 和尙을 推戴하여 佛紀 二五四七年 十月 二十三日자로 就任하였기로 이에 널리 알리는 바입니다. 本宗은 이와 함께 모든 機構와 人事를 刷新 再整備하고 特段의 誠力을 기우려서 宗祖 元曉聖師의 思想과 理念을 宣揚하여 淨佛國土 建設에 이바지 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佛紀 二五四七年(2003년) 10월 일

大韓佛敎元曉宗 副宗正 碧松 金大寬 總務院長 無盡 宋基旭 宗祖重興佛事推進委員會 一同

◆宗正 略歷(慧峰) 金尙祚

- 1. 東國大學敎 佛敎大學敎授 吳處長
2. 慶南大學敎 前身 馬山大學長
3. 大韓佛敎 元曉宗 中央宗會議長 歷任
4. 스리랑카 佛敎大學敎에서 佛敎哲學博士學位 取得